

# 데스크시각

김우성



‘사기 혐의 구속, 성폭력 의혹 의원 사퇴 촉구, 폭력, 연봉 올리기’ 등등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각 지방의회들이 후반기 원구성에서 의장단 나눠먹기, 후반기 의장 임기 나눠먹기는 말할 것도 없이 듣도 보도 못한 기초의원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까지 지방의회의 추태가 요지경속이다.

## 눈뜨고는 못볼 추태 만연

그토록 갈망하던 지방자치가 지난 1991년 제1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18년째를 맞고 있지만 정작은 커녕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멀리 서울시의회 뇌물사건을 나무라기 이전에 가까이 광주시의회 모습은 어떠한가. 성폭력 의혹 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과 당사자의 반박 기자회견 등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민축의 대

상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또다른 시의원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시의회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반성은 커녕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폭력사태까지 벌였다.

# 위기의 지방의회, 이대론 안된다

또 성폭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위원장으로 선출, 시민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다. 참다운 의회상은 어디에 달하게 할 수 없다.

파행을 겪기는 광주·전남 기초의회들도 마찬가지다. 나주시의회는 경우 후반기 원구성을 시작한지 1개월여만인 지난 25일에는, 그것도 이 지역 지방의회 중 가장 늦게 마무리지며 시민들의 민축을 샀다. 시민단체가 오죽했으면 의정비 반납 촉구까지 했을까.

광주 남구의회에서는 2명의 의원이 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1년씩 나눠 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다른 의회에서는 비례대표 임기를 2년씩 반으로 쪼개 2명이 나눠 갖는 일도 발생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윤리위를 소집, 광주시의회 해당 의원들을 전격 제명 조치하는 등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광주시의회도 자체 정화에 나서 해당 의원중 1명을 제명 처리했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결합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 공천권자는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기 보다 자기 잇속을 챙기기 일쑤다. 그런 사람이 당선되다 보니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도 문제다. 당을 떠나 지역의 발전에 진짜 필요한 인물을 가려내야 함에도 선거때만 되면 지역별로 당색이 명확히 갈리고 만다. 그래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자치 정신 되새겨야

이런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와 달리 부산시의회가 최근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학습에 나서 대조를 보인다. 매월 한차례씩 공동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러움이 앞설 정도다.

“지방자치 없이도 국민들은 자유로운 정부 조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자유’의 정신을 갖기는 불가능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평론가 알렉시스 토크빌의 한 마디는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의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기에 충분하다. 올바른 의회상 정립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칼럼

김신희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별 때 종종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꺼내어 다시 읽곤 한다. 원체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는 대다수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화를 나눠보면 작품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작품의 주인공 산티아고 노인은 84일째 허탕만 치다가 85일이 되던 날 본인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배보다 더 큰 돛

단지 전리품을 갈취 당했을 뿐, 싸움에서는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그 영광의 표시가 지워졌을 따름이다. 그렇기에 그의 사자 꿈은 여전히 유효하고 노인은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다. 결국 헤밍웨이는 ‘부쉬지긴 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전리품에 지나치게 집착하느라 스스로가 진짜 패배자인지 승리자인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청년

## 결코 패배하지 않는 삶

새치를 잡게 된다. 주위 어부들로부터 별시 당하고, 이제는 퇴물보 불리던 그에게 마침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거대한 돛새치를 배에 매달아 포구로 돌아오는 사이 노인은 굶주린 상어 떼의 습격을 받고, 상어들과 싸우는 도중 칼, 작살, 갈고리 등을 하나씩 잃는다. 최후의 무기인 막대기마저 놓친 노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배의 키 손잡이까지 떼어내 상어와 사투를 벌이지만, 결국 배가 포구에 닿았을 땐 앙상한 돛새치의 뼈다귀만 남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노인에게 남은 것이 오직 뼈다귀 뿐일까? 밤새 피투성이가 되며 상어 떼와 싸워 얻은 것이 고작 뼈다귀 뿐이라면 노인은 결국 그 싸움에서 패배한 것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바다에서 한 생애를 보낸 자존심 강한 산티아고 노인은

시절 가졌던 꿈들을 죄다 내버린 채 안정된 삶을 위해 몇 년씩 공무원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보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버린 채 고액 개인과 외에 돈을 쓰는 이들도 한 둘이 아니다.

그들에게 묻는다면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인가 물어본다면 그때부터 어려워진다. 헤밍웨이식으로 말하자면 진정한 삶의 주인은 싸움에서 끝까지 ‘버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힘들다고 아무리 불평하고 하소연해도 오늘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또 내일은 밝아온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은 유달리 누군가와 함께 ‘노인과 바다’를 읽고 산티아고 노인을 이야기하고 싶다. 힘든 시절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평론가·2005년 11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지역 특색 살린 기능성 나무 심기 관심

황폐화된 벌거숭이 민동산에 열심히 나무를 심고 가꾼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는 산과 숲으로 우거졌다. 하지만 숲만 우거졌지 건축자재 등 효용성이 높은 쓸모 있는 나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제 산림녹화를 넘어 지역 특색을 살린 조림사업과 기능성 나무 심기가 되어야 한다.

기능성 나무란 과실수 또는 목재용, 약재용 나무 등을 꼽을 수 있다. 목재용 조림 사업은 오랜기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수심, 수백년이 걸린다. 목재용 조림은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유실수나 약재용 나무 심기를 권한다. 유실수·약재용 나무는 4~5년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남지역은 넓은 평원과 야산들이 많다. 이를 잘 활용하면 농가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국·공유지에 수종갱신 차원에서 기능성 나무를 심었으면 한다. 군락을 이루면 농가에 관리를 맡겨 농가 소득에 일조하고, 꽃피는 시기에 벌꿀 축제 등 지역 축제를 열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면 일석삼조가 될 것이다.

▲이준호·고흥군 점암면

# 기고

박용성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다들 힘들어한다. 어디를 보아도 시원한 소식이 없고, 그래서 더욱 짜증이 난다. 이 여름날 사람들의 가슴을 상쾌하게 만들 게 없나 생각하다, 아 그 풍경을 보여주면 되겠다 싶어 글을 쓴다.

세금 좋아할 사람 없다.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세원이 드러나는 봉급 생활자들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지난해도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 달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돈이 1월 급여 집착하느라 스스로가 진짜 패배자인지 승리자인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청년

입력하였다. 그러더니 웬걸, 19만여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지나가는 말로 무슨 돈을 그렇게 내야 하느냐고 했다.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직원은 “무슨 착오가 있을까요”하면서 입력한 것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직원은 세법에 관련된 책을 가져오더니, 단순 경비율을 정하는 방식부터, 이렇게 세금이 부과된 까닭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필자는 혼잣말처럼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그 말을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다니 고맙기도 하고 미안

## 친절로 거듭나는 세무서

를 다독였다. 그런데 지난 5월, 다시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여주세무서에서 통통한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신문과 잡지에 글을 연재하던 터라 원고료가 얼마 들어온 게 있는데, 세금을 더 내란다. 원고료는 지급할 때 이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이 원천 징수됐지만, 종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라. 세금 내는 것도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면서 세무서로 갔다. 종합소득세 신고처가 3층에 마련돼 있었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었고, 그 앞에는 직원들이 민원인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직장에서 세금을 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고료를 받으면서 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었다.

담당 직원이 국제청에 등록된 필자의 아이디에 들어가 업무를 봐 주었다. 직원은 이것저것 복잡한 수치를 꼼꼼히

하기도 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서 필자는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 직원도 일어나서 “안녕하 가시라”며 답례를 했다. 나 오면서 민원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세무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는 풍경이었다.

은행을 갔다가 관공서를 가면 그 느낌이 확 다르다고도 한다. 관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밝고 환한 웃음 대신 고압적인 분위기가 짓누른다는 것이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변화를 실감하지는 못했다. 국민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그 날, 필자는 낮은 풍경을 보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풍경인데도, 우리 공무원 사회가 그런 당연한 풍경을 보여주지 못했던 터라 무척 낯설었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도, 기분은 그렇게 흐트랄 수 없었다.

(여수여고 교사)

## 전문 의료인 없는 사설 구급차량... 환자 피해 우려

얼마전 점심시간에 한 정형외과 병원 앞을 지날 때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엠블런스가 병원 앞으로 왔다. 병원 엠블런스가 아닌 사설 이송업체의 구급차량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 안에서 환자를 이송한 사람은 차량을 운전한 운전기사였다. 간호사나 응급구조사는 보이지 않았다.

구급차 운행 때는 반드시 간호사나 자격이 있는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설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의료인을 태우지 않는 것이다. 구급차는 작은 규모의 병원이며, 움직이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장비보다 갖춘 안정적인 병원이 아니라 극

히 제한된 장비와 인력만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급박함을 고려해 볼 때 전문인력이 탑승해 환자의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운행하고, 그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큰 문제이다. 자치단체에서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함은 물론, 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적절한 정책적 자금지원이나 인력 지원 방안을 모색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이재진·광주시 북구 생용동

# 시설

## 민생 안정 시키려면 ‘MB 물가’부터 잡아야

광주지역의 43개 생필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품목의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등유, LPG 등은 최근 새 무려 40%까지 치솟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시민들이 하루하루 넘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52개의 생필품, 이른바 ‘MB 물가’ 가운데 43개 품목의 지난 4~6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한 결과 22개 품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19개 품목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5%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MB 물가’ 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 걱정이 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유, LPG 등은 40% 이상 폭등했으며 휘발유, 경유 등은 두자릿수 인상 폭을 기록했다. 시민들의 등골이 쫄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상승도 및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 인상이 줄을 잇는다는 점이다. 서민들로서는 앞전 데 덮친 격이다.

물가가 뛰면 실질소득이 급감한 가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특히 물가 급등은 가계 실질소득 감소, 민간소비 둔화, 생산과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빠르게 위축시킨다. 물가관리에 실패하면 경기침체는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장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 상승 압력을 덜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라면 등 일부 생필품에 대한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MB 물가’부터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물가관리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서민들의 숨통부터 터줘야 할 것이다.

## 쇠고기 중간상 원산지 조작 처벌 강화하라

수입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최근 광주에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광주의 한 식육점이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것이다. 식육점과 같은 중간상이 원산지를 조작할 경우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7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광주시 남구 한 식육점을 적발했다. 이 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 100kg가량을 호주산으로 속여 6개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식육점은 뉴질랜드산 쇠고기 1천200kg도 호주산으로 속여 음식점 24곳에 판매했다고 한다. 상습적으로 쇠고기 원산지를 조작해 온 것이다. 문제는 식육점 등 중간상이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이 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에 없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받은 음식점 주인들조차 원산지가 조작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중간상이 원산지를 조작하면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9일부터 L.A갈비 등 빼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4년7개월 만에 다시 수입됐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는 건 이제 시간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더욱 확산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은 한우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국내 축산농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간상 등 유통업체의 원산지 조작에 대해서는 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고, 영업 취소 등 보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無等鼓

18세기 유럽은 식량사정이 넉넉지 않았다. 100여 년 전인 1500년대 후반에 북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감자가 주요 양식이 되었다. 귀족들은 땅속에서 나는 약마의 작물로 감자를 천하게 여겼지만, 감자가 유럽 전체에 널리 재배되면서 일반 서민들은 그나마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년내내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등 유럽의 가세가 넉넉해졌다.

1700년대 초 프랑스 가정의 전형적인 식단 열량가는 중앙아프리카 최남단 르완다의 1965년 당시의 열량가만큼 낮았다는 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로버트 포겔의 분석이다. 르완다는 당시 세계은행이 영양부족으로 가장 심하게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한 국가다. 그는 19세기 중반 유럽의 열량 소비가능량도 현재의 인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8~19세기 유럽 가계의 수입중 75%가 음식에 소비됐을 정도였다고, 그때만해도 유럽인들은 호구에 애매해 살았던 것 같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최근 영국에서 시장에 나온 키위가 기존보다 불과 1mm 작다는 이유로 기준미달로 판매 정지된 페기꿘다고 보도했다. 크기와 모양, 색깔 등 대단히 까다로운 EU 기준때문에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아무런 이상없는 채소와 과일이 매년 수천만 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지난달 220만까지 치솟은 물가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는 인플레이션때문에 무려 1천억 짐바브웨 달러짜리 지폐까지 새로 발행했다. 그들의 참혹한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다. 현재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많은 국가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300년전 오로지 먹을 것에 매달렸던 그들의 선조들을 떠올릴 필요도 없다. 인류가 이 판국인데 유럽인들은 너무 배부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기현호 경제부장 khh@kwangju.co.kr

## 배부른 유럽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재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재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